

2009. 10. 5 제224호

# 세계도시동향

## 목 차

### 문화·디자인

1. 특별 다큐멘터리 '베를린의 24시' 방영 (베를린)
2. '자녀가 변하면 어른도 변한다'란 주제로 '오오에도 무제(舞祭)' 개최 (도쿄)
3. 대규모 음악축제인 '뮤직위크' 개최 준비 (베를린)
4. 시민과 함께 뽑는 '신(新) 8대 명소' (상하이)

### 산업·경제

5. 불황에 강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반기술 산업 지원 (도쿄)
6. 뉴욕市와 관광협약 체결 (런던)
7. 금융산업 발전기금 조성 (상하이)
8. 소비 촉진을 위해 '쇼핑축제' 개최 (상하이)

### 건강·복지

9. 유치원 교육비 무료화 추진 (베를린)
10.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10단계 지침 발표 (뉴욕)
11. 민간단체와 함께 '구직 엄마' 대상으로 무료 직업교육 실시 (런던)
12. 신종 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체계 정비 (도쿄)

## 목 차

### 방재·안전

13. 차량번호를 자동 인식하는 감시카메라 설치 (미국 메디나市)

### 도시환경

14. '2009년 생태보호 자원근무의 해' 출범식 개최 (베를린)
15. 디젤 미립자 필터를 장착한 자동차에 보조금 지급 (독일)
16. 도심에 'Green Impact Zone' 지정 (미국 캔자스市)
17. 상업용 빌딩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업가모임 개최 (런던)
18. 상수원에서 나무 심는 행사 개최 (도쿄)
19. 아시아 최초로 해상 풍력발전소에서 전력 공급 (상하이)

### 도시교통

20. 지역 전문가와 외곽지역을 탐방하는 프로그램 시행 (런던)
21. 도심 상점가를 대상으로 차량 부분통제 (샌프란시스코)
22. 이동전화나 인터넷으로 버스 운행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 (런던)
23. 都청사 주차장을 활용한 교통혼잡대책 '주차한 뒤 버스 타기' 시행 (도쿄)

### 도시계획·주택

24. 도유지를 임대해 환경 배려형 주택전시장 조성 (도쿄)

### 1. 특별 다큐멘터리 ‘베를린의 24시’ 방영 (베를린)

○ 베를린市가 속해 있는 베를린-브란덴부르크州 공영방송인 RBB는 2009년 9월 5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베를린의 24시’란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함.

- 이 다큐멘터리는 1년 전인 2008년 9월 5일 토요일 아침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다양한 장소의 도시경관이나 시민의 일상을 영상화한 것임.

· 80명의 촬영팀이 하루 동안 750시간 분량을 찍었으며. 이를 400명의 제작진이 24시간짜리 다큐멘터리로 완성함.

· 현대적인 포츠담 광장, 동베를린의 후미진 아파트 단지, 도심의 오페라극장, 거리의 소시지 가판대 등 50여 곳에서 일하거나 살아가는 유명인과 시민의 모습을 소개함.

· 시청자는 이 다큐멘터리에서 시장(市長)이 집무에 몰두한 모습,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인 다니엘 바렌보임의 일상, 축구를 다투며 일하는 일간지 사장과 기자의 편집회의 모습도 볼 수 있었음. 또한 환경미화원, 전화통신판매원, 거리의 마약중독자 등의 삶도 엿볼 수 있었음.

- 제작비용은 280만 유로(약 48억 7000만 원)로, 수도권지역의 마케팅업체를 비롯해 수도 문화펀드, RBB, 독일 영화재단, 영화·텔레비전 박물관이 후원함.

· 이 다큐멘터리는 독일 수도에 사는 시민의 삶을 있는 그대로 그려낸 동시대의 초상화로 평가받음.

([www.berlin.de/rubrik/hauptstadt/politik-aktuell/090904.html](http://www.berlin.de/rubrik/hauptstadt/politik-aktuell/090904.html))

([www.berlin.de/kultur-und-tickets/events/24h\\_berlin-ein\\_tag\\_im\\_leben/index.php](http://www.berlin.de/kultur-und-tickets/events/24h_berlin-ein_tag_im_leben/index.php))

### >>> 전문가 검토의견

- 도시의 일상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작업은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도시환경에서는 의미 있는 일임.

-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의 일상을 기록하는 작업을 유관 기관에서 하고 있음.
  - 국립민속박물관은 서대문구 아현동과 정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과 생활문화를 기록한 바 있고, 서울역사박물관은 사라져가는 종로 피맛길 지역을 대상으로 삶의 기록을 채취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사례가 베를린과 다른 점은 일상의 기록을 대중적인 콘텐츠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 베를린과 같이 더 공격적인 전략으로 도시의 일상을 기록해 이를 자원화함으로써 도시의 삶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시민에게 서울에 사는 자긍심을 더욱 느끼게 할 필요가 있음.

/라도삼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kuber21@sdi.re.kr)

## 한 줄 뉴스

### ● 뉴욕

- 환경단체·자원봉사자와 함께 건물 지붕을 하얗게 칠하는 ‘쿨 루프(Cool Roofs) 프로그램’ 시행
- 패션지 보그(Vogue)와 손잡고 ‘패션의 밤’(Fashion's Night Out) 행사를 열어 패션상품 판매

## 2. ‘자녀가 변하면 어른도 변한다’란 주제로 ‘오오에도 무제(舞祭)’ 개최 (도쿄)

○ ‘자녀가 변하면 부모가 변하고, 부모가 변하면 교사가 변하고, 시민이 변하면 거리가 즐거워진다’란 모토를 내걸고 시작한 도쿄의 ‘오오에도 무제(舞祭)’가 2009년 10주년을 맞이함.

- 이 축제는 초등·중학생이 부모나 지역 어른과 팀을 이루고 ‘도쿄 랩소디’에 맞추어 춤을 추는 행사임.
- 이 축제를 주관하는 ‘마음의 도쿄 혁명’ 추진본부에서는 10주년을 맞이해 ‘어른이 진지해지면 아이가 바뀐다’란 주제를 제시함.
  - 2009년 9월 5~6일 이틀간 도민 광장과 도청 대로에서 열렸으며, 우수 참가팀에게는 표창을 수여함.
  - 창작 댄스 발표 프로그램도 마련해 어린이가 지역 어른과 함께 춤을 연습하고 발표하는 체험을 함으로써 사회성과 자율성을 기르고 대인 관계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배우도록 함.
- 아울러 추진본부에서는 ‘마음의 도쿄 규칙 7’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 ① 윗사람에게 매일 정중히 인사하도록 가르치자.
- ② 다른 사람의 자녀도 꾸짖자.
- ③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자.
- ④ 조르는 아이에게 인내심을 가르치자.
- ⑤ 윗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자.
- ⑥ 체험을 통해 아이를 단련시키자.
- ⑦ 아이에게 그 날의 일을 이야기하도록 하자.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 축제인 ‘오오에도 무제’

([www.metro.tokyo.jp/INET/EVENT/2009/08/21j8s100.htm](http://www.metro.tokyo.jp/INET/EVENT/2009/08/21j8s100.htm))

## >>> 전문가 검토의견

- 아이의 중요 교육환경인 성인이 바뀌면 아이도 바뀐다는 모토로 시작한 도교의 ‘오오에도 무제’는 아이들 교육에 지역이 함께한다는 생각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임.
  - 특히 창작댄스 발표 프로그램은 몸으로 마음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꾀할 수 있어 인지 발달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도교의 사례와 유사한 크고 작은 축제가 교육현장에서 열리고 있음. 그 중 고령교육청이 관내 초·중·고교와 함께하는 고령교육축제가 있음.
  - 축제 기간에 교육작품 전시회와 학생 종합학예발표회가 열리는데, 학생들은 에어로빅·한국 무용 등을 발표하는 등 신체활동으로 표현능력을 기르고 있음.
- 우리 사회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아이 교육에 관여하던 전통이 있음. 그 중 하나가 운동회임.
  - 운동회에서 아이들은 다양한 신체활동뿐 아니라 협동심이나 배려 등을 학습하고, 지역 주민은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의식을 키울 수 있었음.
  - 운동회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 교육에 지역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서울시가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혜숙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lhsook1@sdi.re.kr)

## 한 줄 뉴스

- 미국 미시간주
  -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영화 제작사·스튜디오 입주 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 샌프란시스코
  - 지하철·경전철·케이블카 운전자가 2년에 1회 받던 안전교육을 매년 이수하도록 강화

### 3. 대규모 음악축제인 '뮤직위크' 개최 준비 (베를린)

○ 베를린市는 2010년 9월 개최하는 대규모 음악축제인 '베를린 뮤직위크'(Berlin Music Week) 개최 준비에 본격 착수함.

- 베를린 뮤직위크는 주류 음악에서 독립 음악, 전통 음악시장에서 인터넷 음악시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와 활동, 음악가, 문화를 통합하는 대규모 행사임.

· 市 경제기술부는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니라 모든 음악 브랜드를 포괄하는 우산형 브랜드(Umbrella Brand)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세우고 유관기관과 수도(首都) 마케팅 회사인 Berlin Partner와 함께 이 행사를 기획함.

- 市가 2010년 행사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현대 대중음악의 모든 장르를 포괄하는 음악 축제, 음악 경연대회, 음악 박람회, 분야별 음악가와 음악협회 간 모임, 관객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행사 등임.

· 매년 9월 전 세계 음악 애호가와 음악가가 이 행사를 보러 몰려오면 음악 시장의 획기적인 발전을 꾀하고, 음악 메트로폴리스 이미지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09/16/139042/index.html](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09/16/139042/index.html))

### 4. 시민과 함께 뽑는 '신(新) 8대 명소'(상하이)

○ 상하이市 여행국은 2009년 6월 16일부터 '상하이 신(新) 8대 명소'를 시민의



투표로 선정함.

- 市는 2개월간 시민의 추천을 받아 100대 명소를 선정한 뒤 유관 전문가의 2차 심의를 거쳐 8대 명소를 선정함.
  - 이번 행사는 시민이 공식 절차에 따라 투표에 직접 참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市 여행국 홈페이지(<http://lyw.sh.gov.cn/>) 방문자도 약 120만 명에 달하는 등 시민 호응도 높음.
- 市는 8대 명소를 선정한 뒤 이에 어울리는 애칭 역시 시민 공모와 투표로 정할 계획임.  
([http://www3.xinhuanet.com/chinanews/2009-09/04/content\\_17596965.htm](http://www3.xinhuanet.com/chinanews/2009-09/04/content_17596965.htm))

## 산업 · 경제

### 5. 불황에 강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반기술 산업 지원 (도쿄)

- 도쿄都는 지역 만들기 활성화와 기반기술 강화를 목적으로 ‘기반기술 산업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9년 응모한 21건 중 8건을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함.
- 최근 거래구조가 변해 소규모 수주(受注)형 기업만으로는 복잡한 발주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발함에 따라 수주기회 감소, 기술 개발 지연, 수익 격차 확대로 이어짐.
  - 소기업 간 제휴나 그룹화로 수주체계와 기술력을 강화해 공동 대응하면 수주기회와 수익을 늘릴 수 있음.
- 응모 요건은, ① 3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해 공통의 목적으로 활동할 것, ② 사업소가 반 이상 도내에 있을 것, ③ 주조, 단조, 프레스가공, 도금,

절삭, 연마 등 기반기술 산업이 전체 사업의 반 이상을 차지할 것 등임.

- 선정된 소기업 그룹은 5000만 엔(약 6억 5000만 원)의 지원금을 3년간 받게 되며 이를 새 수주시스템 도입, 기술력 강화를 위한 공동설비 도입, 직원 교육, 공동작업장 정비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都는 그룹에 공동사업 진행 관리와 운영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파견할 수 있음.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9/20j915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9/20j91500.htm))

### >>> 전문가 검토의견

- 도쿄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반기술 산업그룹 지원사업’은 소규모 수주형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반기술 산업 분야에서 사업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기업에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함.
- 국내에서도 중소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주도하여 협동화 사업이나 공동화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 이 지원책은 시설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도쿄都의 ‘기반기술 산업그룹 지원사업’과 같이 공동 수·발주 시스템, 공동설비 도입, 직원 교육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발굴하여 사업 개선과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주력산업인 지식서비스업이 수주형 산업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고 지속적인 수주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바, 지식서비스업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업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정병순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jbs66@sdi.re.kr)

## 6. 뉴욕市와 관광협약 체결 (런던)

○ 런던市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뉴욕市와 최근 관광협약을 맺음.

- 두 도시는 2년간 협약을 맺고 옥외광고 공간을 상대 도시에 제공하는 한편

관광산업의 경험을 공유하기로 함.

- 市는 런던을 홍보하기 위해 71개의 뉴욕 버스정류장을 4주 동안 이용하고, 런던 지하철은 250개의 광고 포스트 섹션을 뉴욕市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3659](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3659))

## 7. 금융산업 발전기금 조성 (상하이)

○ 상하이市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2009년 9월 ‘금융창조상’과 ‘금융인재상’을 제정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만듦.

- 이는 창의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금융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하며 글로벌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데 의미가 있음.

- ‘금융창조상’은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금융기술과 서비스 등을 혁신하는 데 기여한 기관이나 시민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상임.
- ‘금융인재상’은 금융산업 발전에 공헌한 인재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의료 및 자녀교육상의 혜택, 보조금 등을 제공함.

(<http://news.hexun.com/2009-09-08/121007535.html>)

## 8. 소비 촉진을 위해 ‘쇼핑축제’ 개최 (상하이)

○ 상하이 쇼핑축제가 2009년 9월 12일부터 10월 8일까지 열림. 이 축제에 쉬자후이(徐家匯)와 난징루(南京路) 등 주요 상권의 상점과 2만여 개 인터넷 상점이 참가하여 판촉 활동을 펼침.

- 각 상점은 특가전, 시간별 할인판매, 야시장 특별상품전 등의 행사를 벌이고 영업시간도 연장함. 이에 따라 지하철도 연장 운행함.

-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소비를 활성화해 경기침체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

환으로, 중국 상무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음.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5/node4411/userobject21ai360267.html>)

## 건강 · 복지

### 9. 유치원 교육비 무료화 추진 (베를린)

- 베를린市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 전 3년간 유치원 교육비를 무료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市는 우선 2011년까지 모든 유치원생에게 초등학교 입학 전 2년간 학비를 무료로 하고, 향후 3년간의 유치원 학비를 무료화하기로 함.
  - 현재 베를린에서 유치원 교육은 초등학교 입학 전 1년간 학비가 무료이며, 저소득층의 어린이에 한해 유치원 교육비를 1년 이상 특별 할인해주고 있음.
- 이 계획이 실현되면 앞으로 유치원생 학부모는 3년간 점심식사 비용만 부담하고 아이를 하루 7시간 동안 유치원에 맡길 수 있게 됨.
  - 유치원 교육비 무료화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이민자 가정 출신이든 부모의 수입이 많은 실업자 가정이든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동등하게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회정의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평가됨.
  - 유치원 교육을 학교 이전의 중요한 교육단계로 확립하고 교육의 내용과 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됨.
- 이에 따라 유치원에서 바로 학교교육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어린이의 언어구사 능력과 학습기술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하고, 교사의 처우도 개선함.

### >>> 전문가 검토의견

- 베를린市가 발표한 취학 전 유치원 교육 무상화 계획은 사회통합 관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로, 무상 유아교육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임.
- 유치원 무상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전 계층에게 취학 전 2~3년간 유치원 교육비를 무상 지원하는 것임.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학교교육과 유치원교육을 분리해 인식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취학 전 학교교육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함.
  
- 우리나라에서도 유치원 교육을 정식학제에 편입하여 무상 의무교육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행해지고 있는 취학 전 교육을 유아학교로 통합하여 의무교육체제로 구축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임. 이와 별도로 5세 아동의 유치원 교육비를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음.
- 서울수도 민간 어린이집을 평가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는 등 질 좋은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혜숙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lhsook1@sdi.re.kr)

## 10.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10단계 지침 발표 (뉴욕)

- 뉴욕市는 2009년 9월 14일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을 위한 10가지 어젠다를 발표하면서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힘.
  
- 市가 발표한 ‘Take Care NY 2012’는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인종 및 사회경제적인 갈등을 줄이며 어린이 보건에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건강한 뉴욕을 만들기 위한 10단계 지침은 ① 시민 모두를 위한 양질의

건강 프로그램, ② 금연, ③ 건강한 식단과 운동 장려, ④ 건강한 심장, ⑤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와 성병 확산 방지, ⑥ 우울증 치료, ⑦ 알코올과 약물 복용 줄이기, ⑧ 암 예방과 조기 발견, ⑨ 어린이 건강, ⑩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등임.

(<http://www.nyc.gov/html/doh/downloads/pdf/public/dohmhnews8-07.pdf>)

## 11. 민간단체와 함께 ‘구직 엄마’ 대상으로 무료 직업교육 실시 (런던)

○ 런던市 웨스트민스터區는 육아 때문에 구직이 힘든 여성 주민에게 직업 훈련·교육을 무료로 실시함.

- 웨스트민스터區와 지역에서 활동 중인 민간단체 Women Like Us가 공동 진행하며, 유럽사회기금과 區 예산을 활용해 교육을 실시함.

· 민간단체에서 일하고 싶으나 방도를 찾지 못한 여성을 대상으로 자신감을 불어넣는 직업교육과 재적응 훈련을 실시하며, 구인 기업과 구직 여성을 서로 연결해줌.

- 區가 조사한 결과, 취업을 원하지만 육아 문제가 있거나 취업교육을 받지 못해 직장을 구할 엄두를 못 내는 여성이 1만 4000명에 달함.

· 기업체는 대부분 임신이나 육아 문제로 직장을 쉬고 있는 여성을 재고용하는 데 난색을 표해 주부실업 문제가 더욱 심각해짐.

- 2009년 9월 24일부터 교육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하며, 지원 대상은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구민으로 나이는 상관없음.

([www.londoninformer.co.uk/london-news/london-local-news/2009/09/09/workshops-aim-to-show-would-be-working-mums-they-have-the-skills-113489-24646128/](http://www.londoninformer.co.uk/london-news/london-local-news/2009/09/09/workshops-aim-to-show-would-be-working-mums-they-have-the-skills-113489-24646128/))

([www.womenlikeus.org.uk](http://www.womenlikeus.org.uk))

## 12. 신종 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체계 정비 (도쿄)

○ 도쿄都是 본격적인 유행기에 들어선 신종 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료체계 정비대책을 시행함.

- 첫째, 도내 전 병원에 인플루엔자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의료체계를 갖추도록 요청하고, 외래 진료 시 조기 진단과 치료를 철저히 하도록 함. 임신 부나 투석환자 등 고위험군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산과(産科) 병원과 투석 치료 병원 등에 협조를 구하고, 의료기관이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둘째, 입원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건강안전 연구센터의 기능을 확충하는 등 감시(Surveillance) 체제를 구축함.
- 셋째, 타미플루와 리렌자를 각각 300만 명분 비축하는 등 항(抗)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약을 추가 확보하고, 마스크 등 개인 방호도구를 추가 비축함.
- 넷째, 도민을 대상으로 예방책을 적극 홍보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설명회를 엮.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8/20j8ka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8/20j8ka00.htm))

## 한 줄 뉴스

### ● 런던

- ‘패션주간’ 행사를 열어 지속가능한 런던의 패션산업을 소개하고 세계 패션산업의 중심지임을 홍보
- 도심의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London Skyride’ 행사를 2009년 9월 20일 개최
- 시장(市長)이 뉴욕을 방문해 런던이 세계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곳이라고 홍보

## 방재 · 안전

### 13. 차량번호를 자동 인식하는 감시카메라 설치 (미국 메디나市)

- 미국 시애틀의 근교도시 메디나(Medina)市는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도시로 들어오는 차량번호판을 자동 인식하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함.
- 市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의 번호판을 감시카메라로 캡처한 뒤 몇 초 내로 차량번호를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함. 도난차량이나 범죄용의자 차량, 유괴차량으로 판명되면 차량 정보가 곧바로 경찰서로 전송됨.
- 감시카메라의 정보는 향후 범죄가 발생할 경우 유용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간 보존함.

([www.planetizen.com/node/40760](http://www.planetizen.com/node/40760))

## 도시 환경

### 14. ‘2009년 생태보호 자원근무의 해’ 출범식 개최 (베를린)

- 베를린市 보건·환경부는 2009년 9월 4일 한 청소년센터에서 ‘2009년 생태보호 자원(自願) 근무의 해’ 출범식을 열.



- 생태보호 자원근무의 해 프로그램은 16~27세 청소년이 대학이나 직업학교에 입학하기 전 1년간 환경 관련 공익근무를 하는 프로그램임.
  - 2009년 생태보호 자원근무를 하게 되는 청소년은 모두 290명으로, 6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됨.
  - 참가자는 먼저 5주간 운영기관이 개설한 과목(생태계, 지속가능성, 범지구화 등)을 이수한 후 근무를 시작함. 이들은 연방주에 따라 180유로(약 31만 원)에서 370유로(약 64만 원)의 월급을 받음.
  - 활동범위는 생태와 관련된 공익활동으로 자연보호 활동에서 환경연구소 근무까지 포괄적임.
- 운영기관은 대부분 교회나 환경단체의 청소년조직으로, 각 연방주와 市の 재정지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함.
  - 베를린의 경우 市와 독일연방 가족·여성·청소년부, 유럽연합 사회펀드에서 지원받음.
- 이 프로그램은 환경정책 겸 노동정책 성격이 있음.
  - 자연과 환경 보전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책임의식을 높일 뿐 아니라 이 과정을 마친 청소년이 이와 관련된 직장에 바로 취직하거나 유관 직업학교나 대학의 학과로 진학하는 계기가 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09/04/137654/index.html](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09/04/137654/index.html))

### >>> 전문가 검토의견

- 베를린의 ‘생태보호 자원근무의 해’ 프로그램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학이나 취업 준비기간 중 1년간 환경에 관한 공익근무를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오래 전부터 시행해왔음.
- 서울시는 민간과 연계해 다양한 환경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환경단체에서 전문성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음.
  - 베를린의 생태보호 자원근무의 해 프로그램 대상연령인 16~27세를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국내 학제를 고려할 때 진학과 진로 선택에 추가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임.

- 서울시의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는 환경 관련 공익근무 프로그램보다는 청소년(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청소년의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진로를 선택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송인주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injusong@sdi.re.kr)

## 15. 디젤 미립자 필터를 장착한 자동차에 보조금 지급 (독일)

- 독일연방 환경부는 디젤자동차의 매연과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디젤 미립자 필터(DPF: Diesel Particulate Filter)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2009년 9월 1일부터 보조금을 지급함.

- 디젤자동차에 미립자 필터를 장착한 사람은 330유로(약 57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보조금은 독일연방 경제·수출관리청에 신청하면 됨.

-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2006년 12월 이전 구입한 디젤자동차로, 2009년 말까지 필터를 장착해야 함. 장애인용 차량에 필터를 장착하면 모든 비용을 지원함.

- 필터를 장착한 차량 운전자는 환경스티커를 발부받아 도심의 환경지역이나 통행 금지구역을 통과할 수 있음.

- 연방 환경부가 이번 지원프로그램을 위해 마련한 예산은 6600만 유로(약 1149억 원)임.

- 디젤자동차 20만 대가 필터를 장착하게 되면 대기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www.bmu.de/pressemitteilungen/aktuelle\\_pressemitteilungen/pm/44849.php](http://www.bmu.de/pressemitteilungen/aktuelle_pressemitteilungen/pm/44849.php))

### >>> 전문가 검토의견

-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에서 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PM10)를 줄이기 위해

독일연방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매연 여과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 자동차의 저공해화 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특화사업에 해당됨.

- 독일의 사례는 종래 저감장치 장착을 권고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환경지역’(Environmental Zone) 지정·운영과 더불어 장착사업을 법제도로 시행하는 것을 보조하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으로 볼 수 있음.
- 서울시는 이미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장치 장착비용의 90% 정도를 지원해 매연 여과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바꾸도록 하는 등 저공해 의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음. 또한 2009년 6월부터 저공해화 사업 대상차량을 7년을 경과한 3.5톤 경유자동차에서 2.5톤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음.
-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08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55\mu\text{g}/\text{m}^3$ 으로, 1995년 대기 질을 측정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현행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를 범규로 엄격하게 시행하는 동시에 2010년 시행 예정인 ‘서울 및 수도권 환경지역’ 지정·운영 제도와 연계해 시행할 경우 향후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 환경지역을 운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에 앞서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저공해화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함.

/김운수 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장(woonkim@sdi.re.kr)

## 16. 도심에 ‘Green Impact Zone’ 지정 (미국 캔자스市)

- 미국 캔자스市는 도심부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Green Impact Zone’을 지정하여 일자리 창출과 혁신적인 개발에 힘씀.
- 에너지 절약기술을 모색하는 연구소 개념으로 도심의 150개 구역을 Green Impact Zone으로 지정함.

- 이곳에서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 구축, 친환경에너지 사용 증진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함.

- 市는 최근 기업에서 투자받은 2400만 달러(약 290억 2000만 원)로 ① 배전망을 개선하고, ② 상업지구와 주택지구의 중간지역에 변전소를 설치하며, ③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자제품을 공급하고, ④ 지능형 전력량계를 설치하며, ⑤ 급행버스노선 공사를 2010년 완료할 계획임.

([www.kansascity.com/115/story/1419433.html](http://www.kansascity.com/115/story/1419433.html))

## 17. 상업용 빌딩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업가모임 개최 (런던)

- 런던에서 활동 중인 기업가 100여 명이 ‘좋은 건물 파트너십’(Better Buildings Partnership)과 ‘그린 500’(Green 500) 주최로 회의를 열고, 상업용 빌딩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를 논의함.

- 영향력 있는 기업가들이 모여 상업용 건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지속가능한 상업부동산 시장을 모색하기는 이번이 처음임.

- 이번 회의에서는 건물 소유주와 이용자가 함께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0%까지 줄이려는 市 목표에 부응하는 방안을 논의함.

- 현재 런던 소재 상업용 건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런던 전체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www.lda.gov.uk/server.php?show=ConWebDoc.3411](http://www.lda.gov.uk/server.php?show=ConWebDoc.3411))

## 한 줄 뉴스

### ● 런던

- 시장(市長)이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열리는 대규모 크리스마스 행사를 뉴욕 시민에게 홍보
-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활동을 위한 예산을 늘리고 성폭력예방센터를 확대 설치

## 18. 상수원에서 나무 심는 행사 개최 (도쿄)

○ 도쿄都와 군마(群馬)현은 공동으로 ‘도네가와(利根川) 수계 상·하류 교류사업’을 시행 중임.

- 이 사업은 상류에 사는 군마縣 주민과 하류에 사는 도쿄都 주민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해 물의 중요성과 수원지의 기능 및 역할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도네가와 수계는 도쿄의 수원지로 상류는 군마縣, 하류는 도쿄都로 이어짐.

- 이 사업의 일환으로 먹는 물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수원에서 나무 심는 행사를 열기로 함.

· 도쿄都에서 40명, 군마縣에서 20명을 각각 모집해 2009년 10월 24~25일 나무 심기와 숯구이를 체험하도록 함.

· 도쿄 주민의 경우, 참가비는 성인 8000엔(약 10만 4000원), 초등학생 6000엔(약 7만 8000원)임.

([www.metro.tokyo.jp/INET/BOSHU/2009/08/22j8v100.htm](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09/08/22j8v100.htm))

## 19. 아시아 최초로 해상 풍력발전소에서 전력 공급 (상하이)

- 아시아 최초의 해상 풍력발전소인 상하이 동해대교 풍력발전소의 발전기 34대 중 3대가 2009년 9월 4일부터 전력을 공급함. 이는 아시아 최초로 해상 풍력 시대를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음.
    - 2008년 9월 23억 6000만 위안(약 4200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하기 시작함. 나머지 31대는 2010년 상하이 엑스포 개최 전까지 완공할 예정임.
      - 발전기 1대당 발전용량이 3MW로, 중국에서 발전량이 가장 많은 풍력발전기임. 무게는 400t, 높이는 90m, 날개 길이는 45m에 달함.
    - 총 34대의 발전기를 전부 완공하면 발전량이 총 102MW에 달해 상하이 1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음.
      - 석탄을 연간 8만 6000톤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3만 7400톤(차량 5만 대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같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http://news.hexun.com/2009-09-08/121007535.html>)

## 도 시 교 통

### 20. 지역 전문가와 외곽지역을 탐방하는 프로그램 시행 (런던)

- 런던교통공사 산하기관인 런던교통박물관은 2009년 전시 주제를 ‘외곽지역’으로 정하고 외곽지역의 문화를 두루 살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산책지도를 만들고 무료 해설을 곁들인 산책 행사를 엮.
  - 첫 탐방 대상지는 런던 북부의 골더스 그린(Golders Green) 지역으로 도심(1존)에서 약간 떨어진 3존에 있음.
    - 전통적인 유대인 밀집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유대인뿐 아니라 한국인, 일본인, 폴란드인 등 다양한 민족 출신이 독특한 문화를 빚어내고 있음. 이러한 지역 특성을 살리고 인근에 있는 대형 녹지인 햄스테드 히스 공원과 연계 탐방 산책로를 세 곳 개발함.

- 산책로는 각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만듦.
  - ① 독특한 문화와 지역을 체험하고 자연을 맘껏 느끼고 싶거나, ② 다국적 음식문화를 체험하고 싶거나, ③ 종교와 명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각기 다른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런던교통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이번에 개발된 산책로에 대한 안내문을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음.
- 산책로별로 3~4회에 걸쳐 지역 전문가가 무료로 해설해주는 행사도 기획함.
  - 해설이 있는 산책은 미리 예약을 받으며 매회 최대 20명까지 참가할 수 있음. 산책은 매회 90분 정도 소요됨.

([www.ltmuseum.co.uk/assets/downloads/golders\\_green\\_walks.pdf](http://www.ltmuseum.co.uk/assets/downloads/golders_green_walks.pdf))

### >>> 전문가 검토의견

- 역사가 오래된 도시인 런던은 긴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문화가 존재함. 이러한 문화를 발굴하여 산책로나 탐방로와 연계하는 사업은 체험을 중시하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런던교통박물관이 추진 중인 사업은 단순히 경로 개발에 그치지 않고 산책지도나 전문가의 해설을 동반해 적극 추진·홍보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 서울시도 역사가 오래된 도시로,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문화가 있음. 서울시에서도 역사문화 탐방로나 궁을 주제로 한 탐방로를 개발하는 등 런던 사례와 비슷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런던市처럼 이러한 사업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신혜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newsun@sdi.re.kr)

## 한 줄 뉴스

### ● 북경

- 초·중등학생의 체질과 건강검진 결과를 2010년부터 전자학적부에 기록해 관리
- 2009년 상반기 가계 소비지출액은 늘어나고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낮아져 시민의 생활수준이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분석

## 21. 도심 상점가를 대상으로 차량 부분통제 (샌프란시스코)

○ 샌프란시스코市는 도심에서 교통 혼잡이 심한 마켓 스트리트(Market Street)의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수단과 택시, 승객·화물 수송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의 통행을 통제하는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할 예정임.

- 이 시범사업은 2009년 9월 29일부터 6주 동안 시행함. 市는 사업기간에 통행량의 변화를 분석한 후 교통 통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할지 여부를 정할 계획임.

- 이와 별도로 향후 6개월에서 1년 동안 마켓 스트리트를 따라 최소 10개 상점 앞에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고, 도로에서 콘서트나 이벤트를 열며, 테이블·의자·서적 가판대 등이 있는 미니 플라자를 조성함.

- 2013~2015년에는 마켓 스트리트의 도로를 재포장하고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볼라드(Bollard)와 알돌(Cobblestone, 집터 등의 바닥을 단단하게 하는 데 쓰는 둥글고 큰 돌로 지름이 20~30cm임)을 설치하여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편리한 세계적인 거리로 만들 계획임.

([www.sfgate.com/cgi-bin/article.cgi?f=/c/a/2009/09/10/MNNI19KOK8.DTL](http://www.sfgate.com/cgi-bin/article.cgi?f=/c/a/2009/09/10/MNNI19KOK8.DTL))

## 22. 이동전화나 인터넷으로 버스 운행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 (런던)



○ 런던교통공사는 시민이 버스정류장에서뿐 아니라 집이나 이동할 때에도 정류장별 버스 운행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정류장별 버스 운행정보 안내사업을 개선할 계획임.

- 2011년부터 2년간 개선사업을 추진해 실시간 운행정보를 안내하는 정류장을 총 2500개소로 확대함.

· 모든 버스에 기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버스 운행정보 음성·문자 전송 사업의 성공을 토대로 이번 사업을 시행해 승객의 편의를 증진함.

·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telent社를, 정류장 정보기기 설치와 관리를 위해 ACIS社와 Trueform社를 각각 선정해 12년간 서비스 공급계약을 맺음.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12482.aspx](http://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12482.aspx))

### 23. 都청사 주차장을 활용한 교통혼잡대책‘주차한 뒤 버스 타기’시행 (도쿄)

○ 도쿄都는 신주쿠區에서 순환버스(신주쿠 WE 버스)가 운행하기 시작함에 따라 변화가의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해 제1본청사 주차장을 활용한 ‘주차한 뒤 버스 타기’(Park & Bus Ride) 사업을 시행하기로 함.

- 자가용 이용자가 도청 주차장에 주차한 뒤 순환버스로 신주쿠 지역을 이동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 1시간 무료, 쇼핑 금액에 따른 무료 주차권 제공, 순환 버스 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

· 순환버스노선은 약 5km이며 10개 정류소를 운행하고 운행간격은 약 10~15분임.

· 요금은 일반 이용자 1회권이 100엔(약 1300원), 1일권이 300엔(약 3900원), 단체 1일권(8명까지)이 400엔(약 5200원)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9/20j993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9/20j99300.htm))

## 한 줄 뉴스

### ● 상하이

- 2009년 9월부터 1년간 공공기관 직원의 성실성·책임감, 산업활동 지원·사회보장 서비스 등 市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

## 도시계획·주택

### 24. 도유지를 임대해 환경 배려형 주택전시장 조성 (도쿄)

- 도쿄都는 2009년 4월부터 都 소유의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주택전시장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등 도유지를 주택 및 환경 시책을 홍보하는 데 적극 활용함.
  - 2009년 9월 19일 문을 연 주택전시장은 ‘都 주환경(住環境) 시책 파트너 신주쿠 주택전시장’이란 이름으로 2014년 8월 31일까지 운영함.
    - 도유지를 都 시책과 연계해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한 첫 사례임.
    - 임대 면적은 약 6080㎡이며, 주차장 면적의 30% 이상을 녹화함.
  - 주민은 에너지 절약 및 내진(耐震) 대책을 적용하고 태양광 발전기기를 설치한 견본주택을 견학할 수 있음.
    - 주택을 전시한 12개 기업 모두 견본주택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함. 관람객은 태양열로 온수를 만들어 사용해볼 수 있음.



(www.metro.tok  
SHIRASE/2009/0  
tm)

환경 배려형 주택전시장의 이미지

yo.jp/INET/O  
9/20j93100.h